

[시나리오]

- (가제) Best Mistake -

연 출 59기 한주연 한새봄 양인혜
제 작 59기 한주연 한새봄 양인혜
조연출 60기 김지수 김수빈
61기 김세은 권준서

주인공 : 권우식 / 최아린 / 임소은

#1. 우식이 방 (아침)

* 화이트톤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있는 집. 그리고 잠에서 깬 한 남자. 준비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한다.

인서트) 책상 위, 벽에 붙어있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순으로. 탁자 위 탁상시계 C.U.

시계가 7:00를 가리키자, 알람이 울린다. 누군가 이불 속에서 손만 뻗어 알람을 끈다. 흰 이불을 걷고 끄으응 소리를 내며 일어난 부스스한 모습의 한 남자(우식이). 한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안경을 찾아 얼굴에 걸친다.

덜끔한 모습으로 바뀐 남자(우식이). 책상 위에 있는 법학 관력 서적 3권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는다. 지퍼를 잠그고 집을 나서려던 우식. 냉장고 앞으로 간다. 냉장고를 열어 콘돔상자를 확인하는 우식. 결의를 다지는 표정을 짓는다.

#2. 백기 4층 내부 (아침)

*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우식이. 시험 결과를 확인 후 실망한다.

항상 같은 자리를 이용하는 우식이. 오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 앉는다. 책을 꺼내 펴고, 바른 자세로 고쳐 앉는 우식이. 공부를 시작한다.

인서트) 시계. 7시, 11시, 4시

우식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다. 한숨을 쉬는 우식이. 핸드폰 화면에는 낮은 시험 점수와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우식이가 한숨을 쉴 때 동시에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소은이)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둘은 눈이 마주쳐 깜짝 놀라지만 이내 다시 각자의 핸드폰을 쳐다본다.

#3. 백기 4층 밖 (오후)

*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우식이.

백기 4층 의자에 앉아있는 우식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우식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응.. 떨어졌네

우식 공부, 해야 되는데 계속 집중이 안되네. 오늘은 좀 실까봐.

통화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식이. 표정이 좋지 않다.

#4. 백기 앞 (저녁)

* 공부를 마치고 도서관을 나온 우식이는 아린이와 전화를 하고 술을 마시러 간다.

가방을 메고 도서관 밖으로 나오는 우식이. 여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은 표정이다. 핸드폰 진동이 울리고, 우식이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다.

아린 [전화] 야 김우식, 괜찮냐?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 잔 하자. 너 시험 본다고 맨날 피했잖아.

우식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그건 그런데..

아린 [전화] 또 안 마신다고? 아휴 알았다 알ㅇ...

우식 (아린이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마셔. 마시자. 오늘은 진짜 마실게.

아린 [전화] 뭐야 웬일이야? 알았어. 10분 뒤에 참살이!

전화를 끊고 걸어가는 우식이의 뒷모습.

#5. 술집 (저녁)

* 단 둘이 술을 마시는 아린이와 우식이. 한 병, 두 병, 늘어나는 술병들. 결국 우식이는 완전히 취하게 된다.

인서트) 부딪치는 두 술 잔과 함께 들리는 "짹" 소리.

아린이는 우식이를 위로해주고, 우식이는 기운 없는 표정으로 술을 마신다.

아린 어차피 이번이 첫 시험이라며. 아직 기회 많잖아!!

우식 그렇긴 하지..

아린 그런데 넌 왜 이렇게 로스쿨에 목숨 거는거야? 너 정도면 솔직히 웬만한 데는 다 취직할텐데...

우식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내가? 너가 아니고?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우식 솔직히 난 아린이 너가 부러워.. 나는 너처럼 친구 사귀는 것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오죽하면 내가 그 힘들다는 로스쿨에 매달리겠어.. 그 로스쿨 한 번 들어가려고 내가 콘..! 아니 암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산다 내가...

아린 야 뭐래. 난 너가 더 부럽다. 너는 내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성공할 거야.
우식 (웃으며) 말이라도 고맙다. (한숨 쉬며) 근데 이번 시험은 말아먹어 버려서..
아린 야! 잊어버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약한 소리하지 말고, 짠!
우식 (쓴 웃음을 지으며) 짠!

늘어나는 빈 병들과 함께 점점 몸짓이 느려지는 우식이. 술에 취해간다.

우식 한 잔 더! 꼬오오~
아린 (웃으며) 애 오늘 왜이래. 그래 꼬오오!

우식 (울먹이며 꼬인 발음으로) 하..씨...나 이러다 로스쿨 못 가면 어떡해.. (우는 목소리로) 어떡해...

우식, 비틀대며 이야기를 하다가 수저를 테이블 밑으로 떨어뜨린다. 우식은 수저를 주우려고 테이블 밑으로 내려간다. 겨우 손가락을 주워 일어나려는 우식은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박는다. 우식의 안경이 떨어지고 박살이 난다.

안경이 벗겨진 채 다시 자리에 앉은 우식이. (별빛이 내린다~) 그 모습을 본 아린이는 살짝 심쿵한 모습을 보인다.

아린 뭐..뭐야 너 안경 어디 갔어.
우식 (꼬인 발음으로) 어? 그러게. 안경 어디갔어어
아린 (얼얼한 표정으로) 와 못 알아 볼 뻔 했네. 안경만 벗으면 적응이 안 된다니까.
우식 (취한 목소리로) 술 줘! 술! 여기 후레시.. 아니야 오리지날 한 병 더 주세요! 아주 빠아아알간 거!

술을 마시는 우식, 결국 테이블에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든다.

아린 (살짝 취한 목소리로) 야, 김우식! 일어나!

취한 채로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우식. 아린이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그녀의 가방을 챙기며 허둥지둥댄다.

우식 (핸드폰 시간을 보며) 헐 벌써 아침 11시야? 늦었다. 백기에 자리 없는데.

재빨리 가방을 메고 뛰어나가는 우식. 술집을 나간다.

#6. 길거리 (밤)

* 취한 채로 빠르게 달려가는 우식이. 편의점 앞을 지나다 그 앞에 멈춘다.

육상 선수마냥 재빨리 달리는 우식이.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면서 어딘가로 달려간다. 그리곤 갑자기 편의점 앞에 멈춰선다.

(블랙 비디오)

#7. 우식이 방 (아침)

* S#1과 똑같은 느낌으로 시작. 화이트톤의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있는 집.

인서트) 책상 위, 벽에 붙어있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순으로. 탁자 위 탁상시계 C.U.

알람시계가 울린다. 우식이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우식이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손만 C.U) 알람을 끄려고 손을 뻗지만 핸드폰 대신 여자 속옷을 잡는다.

예상치 못했던 촉감에 우식이의 눈이 번쩍 떠지고 속옷을 눈앞으로 가져온다.

우식 꼬아아아아! (우식이의 경악한 눈 E.C.U)

우식,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다. 속옷은 침대 위로 떨어진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 입은건지 벗은건지 마구 흐트러진 옷.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인지 방이 빙글빙글 돈다.

우식 (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이마를 짚으며) 뭐지, 내가 잠이 덜 깬나.

아주 무서운 것이라도 보는 것처럼 덜덜 떨면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침대 위의 속옷을 보고 또 다시 소스라치게 놀란다.

우식 뭐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갑작스러운 숙취가 밀려와 화장실로 달려간다. 화장실 닫힌 문 너머 들려오는 우식이의 토하는 소리. 이후, 수도꼭지 트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식이, 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화장실을 나온다.

우식 어우, 속은 또 왜 이래. 어제 얼마나 마신거야... (급충격) 아니, 그 전에. 누구랑 마신거지?!

그 때, 우식이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우식이는 회상에 빠진다. (zoom in 효과- 그 하절 그 효과)

#8. 우식이의 방 (밤)

* 우식이의 흐릿하고 왜곡된 회상. (우식이의 안경이 깨졌고 + 술에 많이 취했기에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 뿌옇고 흐릿한 화면으로 보여줌)

(심장 쿵닥쿵닥하는 효과음이 계속 깔리며 점점 커진다) 우식이가 한 여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 흐릿한 형상의 여자는 우식이의 말에 웃고 둘이 손을 잡고 있고 핑크 빛 분위기가 형성된다. 우식이가 손을 뒤로 빼다가 둘이 함께 침대로 넘어지고 둘이 눈을

마주치고... (*진실은 뒤에서 밝혀진다)

#9. 우식이의 방 (아침)

* 다시 현재로.

짱그랑- 효과음과 함께 우식이가 현실로 돌아온다.

화장실 앞에서 멍하니 서서 침대 위의 속옷만 바라본다. 속옷 아웃포커싱하고 우식에만 초점 맞췄다가 속옷으로 초점 이동하면서 우식 아웃포커싱.

한참 우식이가 멍 때리고 있는데 그 때 땡땡. 초인종 소리.

우식 (거의 일정한 한 음으로. 아직 정신이 나가있는 채로) 누구세요.

아린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나야!

정신이 퍼뜩 드는 우식. S#8의 흐릿한 씬이 빨리감기로 지나가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흐릿한 회상이지만 마지막에 넘어져서 눈을 마주치는 장면에서 갑자기 흐릿함이 걷히더니 뿌연 여자의 얼굴이 아린이의 얼굴로 선명하게 바뀐다. (*빨리감기로 빠르게 짝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같이 넘어지는 장면에서 속도 늦춰짐, 콘돔 박스가 뜯겨져 있는 것을 확인 (확대))

우식 맵. 소. 사.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린이. 우식이의 방문이 열린다. 우식, 오들 오들 떨고 있다.

아린 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린, 우식이의 모습을 본다.

아린 (깜짝 놀라며) 애 왜 이래.

우식 (어색함 그 자체) 아, 안녕.

아린이가 우식의 방 안으로 들어오고 우식은 잼싸게 속옷을 베개 아래로 숨긴다.

#10. 우식이의 방 (아침)

* 우식이 방의 바닥에 앉아 침대에 등을 기대고 이야기하는 아린이와 우식. 아린이는 침대에 편하게 팔도 올리고 등도 기댔지만 우식은 조심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아린이와 어색한 거리를 두고 앉아 아린이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아린 (우식에게 가방을 건네며) 여기.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면서 살짝 웃으면서- 유혹하는 웃음이 아니라 웃긴 일을 회상할 때 나오는 그 살짝 웃음) 아, 진짜 어제 완전 쉬여가지고.

우식 (화들짝) 쉬...쉬여..?

아린 (푸훗) 야, 너 어제 완전 제정신 아니었잖아. 완전 짐승이었어. (어흥 소리)
우식 (더 화들짝, 자신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가?
아린 (놀리듯이) 아주 그냥 물불을 안 가리던데! (불타는 소리)
우식 (놀람에 놀람이 거듭되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한다)
아린 (웃음을 어느 정도 거두며) 하튼,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고. 내꺼 가지러 왔어.

아린이가 우식에게 어서 달라는 듯이 손을 내민다. 우식, 망설이다가 아린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는다.

아린 (기겁하면서 우식이의 손을 떨친다) 뭐야 이 자식이 아직 술이 안 깬나. (짜증내며) 아니, 내 꺼 달라고!

혼란스러움 폭발해서 어쩔 줄 몰라하다가 아, 드디어 알아냈다는 듯이 큰 결심을 한 표정.
우식, 조심스럽게 베개 아래에서 속옷을 꺼내 아린에게 건네며

우식 (몹시 수줍어하며) 여...여기...

#11. 블랙비디오

뽀 때리는 소리만 짹!하고 난다.

#12. 우식이의 방, 아침

* 다시 S#10의 상황으로.

아까와 똑같은 구도로 앉아있지만 아린이는 씩씩거리고 있고 우식이는 더욱 구석에 눌러앉아 벌개진 볼을 얼음 찹질을 하고 있다. 잠시의 침묵 뒤에

우식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러니까...
아린 (바로 말 끊으며) 어우씨, 입 다물어.
우식 (움찔하지만 다시 용기내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음... 그러니까... 안 그랬다는 거지?
아린 (분노) 아 아니라고!!
우식 (살짝 흘쩍이며) 막... 막... 섞였다며...
아린 (분노 up) 아니, 이 변태새끼. 무슨 생각 하는 거야.

#13. 전 날 술자리와 당일 아침의 회상장면과 우식이와 아린이의 대화 왔다갔다.

*S#12의 우식이와 아린이의 대화 소리는 장면과 무관하게 계속 이어진다.

아린 가방이 섞였다고, 가방이!! (우식이가 아린이의 가방을 들고 튀는 회상장면.) 니가 내 가방 들고 갔잖아! (오늘 아침, 우식이의 가방에서 우식이의 민증을 주소를 확인하는 아린이 회상) 어우씨, 너 연락도 안 돼서 내가 민증 주소 보고 찾아왔다.
우식 (혼란, 울먹) 내가 짐승이었다며...

아린 (코웃음) 그래, 짐승이었지. 개였지, 개. (우식이가 전날 술자리에서 네 발로 기고 알알 짓는 회상장면)

우식 (당황) 물...물불도 안 가렸다면서..!

아린 정말 안 가렸지.

우식 (술에 잔뜩 취해서, 찌개 끓이는 불에 물 주전자를 부으며) 와하하 내가 불의 신이다! 타올라라 타올라!

아린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젓다가 우식이가 불나방처럼 흘린 눈으로 불에 혀 갖다대려고 하니까 급히 말리며) 에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제야 오해가 풀렸다. 우식, 다행이라는 듯이 한숨을 내쉰다.

아린 아니, 진짜, 나는 어제 너가 그렇게 툭 튀고 난 다음에 집 가서 혼자서. 잘 잤다구요, 아저씨. (우식, 안도의 고덕고덕. 아린, 급 깨달음) 어? (바닥에 내팽겨쳐진 속옷을 바라보며) 그럼 이건 누구꺼야? (우식에도 깜짝. 아린이, 우식이 짜-속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며) 야, 너.... (놀리는 말투, 어깨 툭툭 치며) 뭐냐? 뭐냐?

우식 (쭈글) 아니,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린 (또 급 깨달음) 아니, 잠깐. 이거 속옷이 여기 있는 거 보면... 혹시..?! (벌떡 일어난다. 우식, 겁에 잔뜩 질려 덩달아 일어난다) 혹시 아직 그 사람 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쿠쿵! 공포영화, 스릴러st 배경음악이 깔린다. 그 때, 옷장에서 에츄! 재채기 소리가 나고 아린이와 우식이 움찔한다. 말없이, 발소리도 내지 않으며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옷장에 다가가고 우식도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간다. 배경음악 점점 고조. 옷장 앞에 이르러 아린이가 우식을 속 쳐다보고 우식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린이가 옷장 문을 확 연다.

옷장 속 헝클어진 머리와 이마에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는 소은이가 나타난다.

아린이가 까악-하자 소은이도 덩달아 까악-하고 한참 소리 지르고 드디어 둘 다 진정했는데 너무 놀라 소리도 내지 못하다 이제야 정신차린 우식이 그제서야 정적 속에서 혼자 끼얹야아아아악! 소리를 지르고 소은이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아린이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둘다 우식을 쳐다본다.

#13. 편의점

* 뒤로 감기

우식은 취기를 깨면서 집으로 가다가 편의점에 들린다. 이온음료를 사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소은이가 취해서 알바한테 난동을 부리고 있다.

소은 아저씨! 제가 아저씨 부르고 있잖아요 왜 안와요?? 지금 저 무시해요???

알바 (한숨 쉬면서 무시한다)

소은 아저씨!! 지금 아저씨라고 불러서 대답 안하는 거예요? 아저씨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도 제가 지금 부르자나요! 이거 누르고 있잖아요! (손으로 호출기 누르는 것처럼 하면서 입으로 땡땡땡 소리를 낸다)

우식은 소은이를 보며 술이 깬다. 알바에게 불쌍한 눈빛을 보내며 계산하고 나가려 한다.

소은 아저씨!!!! 진짜... 나 무시하지 말라구요... 나 판사될 사람이야!!! 물론 아직 아니긴 하지만... (눈물이 맺히면서) 아저씨도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거죠... 내가 하는 짓이 쓸데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나중에 여기 더 추가)

우식은 소은이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한다. 소은이를 데리고 다시 편의점 테이블에 앉는다. 맥주캔 2개가 놓여있다.

우식 (살짝 취한 듯한 목소리로) 이거 먹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소은하게) 술이 약하면 먹지를 말지

소은 어 백기 4층 사람이다! 아니 맥주 먹고 취할수도 있지...

우식 (안보이는 듯이 눈을 찌푸리며) 저 알아요..?

소은 그 쪽도 저 무시해요? 오늘 저 무시하지 말아요 안그래도 우울한 날인데 (말 끝을 흐린다)

우식 아니아니...! 무시 안 할게요! 그냥 저도 우울한 날이니까 같이 마셔요

소은 오 백기 좀 통하는데 그 쪽은 왜 우울해요...? 나는 시험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우식 저도 그런 날이네요. 아등바등 애는 쓰는데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소은 저 진짜 망했어요... 저 이렇게 보여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달이 바로 시험인데... 작년에도 완전 망했거든요.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시험지만 보면 아주 팽팽 도는게 (취한 듯 앞드린다) 이번에도 완전 망할거예요

우식 (맥주를 마시며) 저랑 완전 똑같네요. 이 시험 하나 때문에 술도 안먹고~ 친구도 안만나고~ 맨날 도서관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착잡하게) 그냥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놓고 술은 또 마시고 있으니... 진짜 시험 친 것도 아닌데

소은 (앞드려서 즐린 듯 고덕이다가 벌떡 일어나며) 우리! 똑같은 사람끼리! 짠 해요!

우식 (열게 웃으며) 아 내일 공부해야 하는데... 몰라 짠!

bgm 깔리며 둘이 행복하게 술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신난 듯이 과자 봉지를 흔들며 우식이네 집으로 간다.

#14-1 우식이네 집

* 침대 앞에서 작은 상 펴놓고 둘이서 술을 마신다. 이미 한껏 취한 상태. 냉장고에 숨겨놓은 콘돔을 소은이가 맥주 꺼내다가 발견하였다.

소은 모야! 그럼 이 시험 때문에 연애도 안하는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대단해! 나도 안한다고요!!

우식 못하는거 아니고?

소은 야! 아니아! 안하는거야! 자 안하는 사람들끼리 짠~~~~

우식 짠!!!

소은 근데,,, 이걸... (박스를 들며) 냉장고에 넣어 놓을만큼.... 그렇게 각오해야해?

우식 (순수하고 비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매일 아침마다 다짐한다고! 내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절대! 여자한테 손도 안대겠다! 이런거지!

소은 그래 아주 큰 각오 했네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데?

우식 이게 내가 제일 잘 하는거니까. 운동도 못하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공부는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거잖아. 내가 잘 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거잖아.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잘 모르겠다. (한숨 쉬며 술을 마신다)

소은 왜 엄청 열심히 하던데 매일매일.

우식 열심히 하지. 근데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유일하게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건데 다들 잘 하잖아. 뭐 오늘 결과 나온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소은 잘 하는 사람들... 많지 그치. 열심히 안하는 사람들도 없고. (몇 초간 곰곰이 생각하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 돕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거라고 생각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거잖아. 무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격이 있어야지. 안그래?

우식이의 생각하는 표정

소은 무튼 이건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야. 그럼 힘든게 좀 가시더라고.

우식 멋진 말이네

소은 (다시 밝게 웃으며) 내가 좀 멋지지

우식 멋있어. 예쁘다.

소은 내가?

우식 응

당황하는 소은이와 눈이 마주치는 우식이. 공기 공기한 분위기 를랄루

#14-2. 우식이네

*사랑이 넘치는 우식이네 (회상 끝)

#15. 우식이네 아침

*소은이가 먼저 눈을 뜬다. 옆에 있는 우식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거에 한번 더 놀란다. 숨을 참는 소리에 우식이 뒤척이자 입을 막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온다.

조심스럽게 옷을 주워서 하나씩 입는다. (옷을 좁는 손 CU)

소은 N.A. 양말까지 다 찾았는데 내 속옷 하나는 어디갔지...?

계속 주변을 찾으며 양말을 신는다. 그 때 뒤에서 우식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양말을 신다가 급하게 벽?에 머리를 부딪힌다. 아파할 시간도 없이 눈 앞에 보이는 옷장에 숨는다

소은 (옷장 속에서) 나 왜 숨은거지...? 미쳤나봐 어떻게 나가려고 숨었냐 아... 망했네 진짜

#16. 현재로 돌아온 우식이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우식이네 침대에 아린이와 소은이가 앉아있다. 아린이는 소은이 이마에 밴드를 붙여준다.

아린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소은 네....
아린 어떻게 나갈려고 했었어요...?
소은 모르겠어요... 일단 숨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옆에서 우식은 속옷을 소은이에게 건네려 한다. 하지만 아린이가 쬐려보는 눈빛 때문에 가만히 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강아지 깨갱소리 사용)
그러다가 소은이가 우식이 손에 들려있는 자신의 속옷을 발견한다.

소은 어...라...? (눈치보며) 하..하하... 제가 찾던게... 여기 있네요...?

우식이 손에서 가져가려고 하자 우식이 놓지 않는다.

우식 저기..
소은 하하하하하하...

소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속옷을 가져간다. 그리고 뒷걸음질 치며 집을 나간다.

소은 그럼 안녕히계세요!

멍한 우식과 아린이만 방안에 남는다.

#17. 다음날 도서관 (D+1)

평소와 똑같이 우식과 소은이는 도서관에 간다. 우식은 자기 자리에 앉고 소은이를 슬쩍 본다.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우식은 놀란 듯이 눈을 피하며 자기 책을 꺼내고 공부를 시작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행복해 하던 자신의 모습과 소은이의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

12시가된 시계 CU. 결국 우식은 포스트잇에 무언가를 적고 나가면서 소은이의 자리에 둔다.

쪽지 - "우리 밥이라도 먹을까요..?"

쪽지를 받은 소은이도 웃으면서 우식의 뒤를 따라 나간다.